

1. 1934년 정월 4일 출생. 동독의 작은 도시. 지금은 공업도시가 되었다. 부모님은 독일 출신이고, 아버지의 직업은 철공 수공업자, 어머니는 가사일을 하셨다. 나는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2. 1945년 해방 직후 노동농민 출신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다. 아인 하인츠 슐레 통일 학교라고 했다. 10~18살 아이들이 같이 배우는 곳이었다. 4년은 보통 인민학교 다음으로 4년 동안은 중학 제도였다 총 8년제.
3. 1950년부터 대학 입학이 보장되었다. 교장선생님이 뭘 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언어학 관련 전공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러시아어에 관심이 많았다. 교장 선생은 서반어를 배우라고 했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 동독은 40년대 말 중국혁명의 성공으로 감명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나는 52년에 훔볼트 대학에 입학했고 첫 강의는 중국말을 잘 하시는 늙은 교수님이셨다. 중국말을 배우려면 동아시아 말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 당시 나는 19살 이었다.
4. 1950년에 조선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친소(련) 선전이 있었는데 남한 반동세력은 이북에서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북한 소식은 미국의 폭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연대감이 형성되어 조선어를 학생 10명 정도가 배우겠다고 하였다. 제1외국어는 중국어. 제2외국어는 조선어.
5.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신 교수님은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조선말을 가르쳤던 분은 좋은 분인데 이분은 조선말을 몰랐는데 언어학자로서 이란어, 독문학, 조선말도 재미있어 자습해서 배웠다고 한다. 우리는 59년까지 문법만 배웠다. 회화 가르쳐 주지 않았다.
6. 그 당시 동독에서 유학하는 북한 출신 학생은 2000여명 정도였다. 그 중에 한 명이 회화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1954년 동독은 북한과 외교를 신설했다. 그리고 평양에 동독 대사관을 만들었다.
7. 평양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사람을 파견하라는 요구가 있어 1955년 내가 평양을 가게 되었다. 나는 통역을 못하고 대사관 직원이 회화에 능했다. 나는 문법을 잘 배워 북한 신문을 잘 읽을 수 있었다. 사실 그것도 오래 걸렸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실리는 기사를 읽고서 오늘은 무슨 내용이 실렸다고 말해 주었다.
8. 1년 동안 평양 동독대사관에서 일하면서 김일성 대학에서 오신 언어학자 한 분이 나에게 특강을 해줬다. 이분은 영어문학자였다. 독어는 못하셨다. 이 분은 조선어를 공부하는 러시아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만든 분이셨다. 1주일에 한번씩 나를 가르치셨다. 나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9. 전 유럽에서 조선어문학을 가르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54년 이후 동독 훔볼트 대학에서 만들고자 하였다. 내가 1959년 졸업하였다. 전공은 조선어이고 부전공은 일본학이었다. 59년, 60년 동독에서 처음으로 조선 현대문학 강의를 생겼다. 나는 조선 문학을 읽으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1920년대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해서였다. 나는 김일성 대학에 1960년부터 2년 동안 파견되어 현대 문학사를 배웠다.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따기는 어려웠다. 문학 작품 한 페이지를 읽고 이해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정말 어려웠다.
10. “눈먼 사람들 중에 눈 하나 있는 사람이 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1958년에는 통역이 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독대표단 동행 통역을 했다.
11. 동독과 북조선 정치회담이 있을 경우 나와 동독에서 유학하는 북조선 학생이 같이 하였다. 동독 정치인들이 혁명적 전통을 말할 때 불란서 혁명을 포함한 세계혁명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었지만 북한 정치인들과 김일성까지도 혁명적 전통이라는 말을 무장 투쟁으로 오해하였다. 처음에는 통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해의 근거는 역사적인 뿌리(배경)의 차이였다.

12. 1970년대 말 내가 조선문학을 하나의 통일체로 파악했다. 오늘날까지 남, 북한 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독일 통일 후 이 문학 작품이 남, 북한 사람들이 통일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하였다. 1992년 이후 박경림의 '토지'와 월북 작가 이기영의 '두만강'을 일부 번역 발표했고, 두 책을 대비해서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13. 1955년에 처음 갔었을 때는 평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파거나 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그 때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후 1960년에 북한에 다시 갔을 때는 대학생들이 이바지 되어 폐허였던 평양을 되살려내었다. 나는 1년 반 동안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우리 방에서 같이 지내던 조선 처녀학생들의 일상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4.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는 조선 처녀학생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 5시 반에 기숙사를 나서서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도 걸어서 노동 현장에 나가 4~5시간 땅을 파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 식사 후 11시까지 정치궐기 하고 기숙사에 돌아왔다. 우리는 간단한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11시부터 5시까지 그들은 죽은 듯이 잠을 잤다.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대학에서 강의도 잘 듣지도 못했다.

15. 나와 같이 기숙사에서 살던 최정숙 처녀동지는 목소리가 아름다웠다. 그녀는 신문과를 전공하여 후에 기자가 되고 싶어했다. 하루 일과 다음에 합창단 연습을 했고 1961년쯤에 1500여명의 합창단에 포함되어 국내외 관객들의 박수를 받은 일이 있다.

그 당시 연습은 평양에 음악당이 없어 천막에서 연습을 했는데 먹을 것도 부족하여 잘 먹지도 못한 채 10월부터 추운 12월까지 밤에 천막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그 후 그녀는 관절 병에 걸려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일본 사람이 개관한 온천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1961년을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21살의 건강한 처녀가 1년 만에 목발로 걸어 다녔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16. 북한의 정치가들은 김일성을 비롯 젊었을 때 유격대, 투쟁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나는 늙은 혁명가들이 젊은이들에게 과대 요구하고, 그들을 자기편에 끌어들이지 못한 게 사회주의의 몰락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17. 오늘의 북한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1950~60년대에 나는 그들을 지지하였던 시기이고, 70년대 말 80년대부터 정치가들은 자신의 출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동독에서도 출세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다. 그들은 민중의 행복(복리)는 걱정하지 않았다.

18. 1994년 김일성 사망. 내 생각에는 그 때 그가 서거하기까지 북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일, 정운은 난 이해하지 못함.

19. 나는 1966부터 89년까지 김일성 주석과 호네카(동독 총 비서) 두 지도자 사이에서 통역을 했다. 김 주석은 조선 말하는 동유럽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서 고마웠다. 내가 본 김 주석은 머리가 똑똑하고, 논리적 사고력이 강하고 자기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조선 말로 전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 보다 잘했다. 나의 꿈은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김일성 회고 집을 쓰고 싶은 게 꿈이다.

20. 1960~70년대 동독에는 북한 청년들이 2000명 정도 있었다. 독일 처녀와 북한 청년들이 사랑을 했고 그들 중 몇몇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다. 북조선에서는 그들을 불러들였고, 12명 정도의 독일 여자들도 같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독일 여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동독보다 못한 삶의 질이 문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건 아니라고 했다.

21. 동독에서 유학하다 동독 여자와 결혼하여 돌아온 북한 남자들은 비판 받고 출세를 하지 못하게 되고, 왜 조선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하며 변절자라고 했다. 그 후 동독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북한에 여러 번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22. 1990년 처음 한국에 가다.

내가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 사람으로 한국에 간 사람으로 첫 사람은 무역 상인이었고 나는 두 번째였다. 그 당시 내가 이태원으로 쇼핑을 갔는데 안기부 요원이 날 감시하며 따라 다녔다. 물건을 사려는데 점원이 “언제부터 한국에서 살았냐? 왜 한국말 잘 하냐?”고 묻자 옆에서 지켜보던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이 북한에서 말을 배웠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하였다.

23. 내가 한국에 가기 한 주전에 일본에 들렀는데 그 때 만난 한국 사람들이 나를 통일이 된 독일 사람이라고 축하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축하할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4. 통일 독일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말했다. 통일은 독일 식으로 하지 마라. 통일을 준비한다면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마라. 머리를 쓰고 자기 창조적으로 해야 한다. 남, 북한은 언제 통일 될 것인가 물어본다면? 어떤 누구도 예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